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1994. 7

鄭永泰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問題提起	1
II. 금번 頂上會談 提議의 特徵	3
III.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背景 및 意圖	5
1. 背景	5
2. 意圖	7
가. 肯定的 意圖	7
1) 南北韓 關係改善과 外交의 孤立 脫皮	7
2) 外部援助 및 經濟協力の 誘引 및 擴大를 통한 經濟沈滯 脫皮	9
나. 否定的 意圖	10
1) 「核武器 保有」와 「核카드 活用」의 二重目的 達成을 위한 環境造成	11
2) 南韓 排除 次元의 美·北韓 「平和協定體制」 構築	12
3) 內部體制 鞏固화를 위한 金日成 威信誇示	13
다. 綜合評價	14

IV. 頂上會談 展望 및 우리의 考慮事項	18
1. 頂上會談 展望	18
2. 우리의 考慮事項	19
가. 南北頂上會談 開催 準備를 위한	
安定的 霧圍氣 造成	19
나.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 議題 關聯	
韓·美間의 事前 調律	20
다.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과 南北頂上會談과의	
有機的 連結 圖謀	21

I. 問題提起

-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지난 6월 15~18일까지 3泊4日間 북한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前 美대통령을 통해서 南北頂上會談 開催를 提議하였음. 한국 정부는 이를 즉각 수락함과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副總理級 예비접촉을 6월 28일에 개최할 것을 提議(6.20)하였고, 이틀 후 6월 22일 북한이 이를 전격 수락, 통보해 왔음. 이에 따라 개최된 6월 28일 예비접촉에서 남북한 兩側은 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음.
 - 1994년 7월 25~27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 다음 회담은 1차 회담시 쌍방 頂上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함.
 - 쌍방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서 노력함.

- 이러한 提議 및 合意는 북한이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하자 IAEA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6.10)하게 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IAEA 탈퇴선언(6.13)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對北制裁 결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시점에서 북한이 核凍結이라는 宥和策을 제의하자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제까지 북한은 남측이 여러차례 제의해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 제의는 북한의 意圖와 관련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함.

-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提議는 핵문제 관련 制裁局面에 처한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戰術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對內外的 政策轉換을 意味하는 것인가?
- 남북정상회담 成事與否 및 展望은 어떠한가?

- 本 報告書의 목적은 이러한 諸 質問을 바탕으로 김일성 주석이 南北頂上會談을 提議한 背景 및 意圖를 分析함과 동시에 향후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II. 금번 頂上會談 提議의 特徵

- 지금까지 한국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南北頂上會談을 인식해 왔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식·비공식 경로를 이용하여 북한 당국에 수시로 제의해 왔음.
 - 특히 김영삼 정부는 취임시부터 北核問題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하는 한편, 南北特使交換과 南北頂上會談에 관심을 보여왔음.

- 반면 북한은 남북한 최고위급은 물론, 당국과 각 정당 首腦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소집요구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함으로써 우리측이 의미하는 兩 頂上들의 일 對 일 對坐形式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 1993년 5월 25일 강성산 북한 정무원 총리가 특사교환을 통한 정상회담 논의를 제의해 왔으나, 이것 역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핵문제 관련 당시의 國際制裁 분위기 극복차원에서 특사교환 요구 자체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번 카터 前 美대통령이 전한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는 비록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요구에 대한 應答 次元의 것이나 그 형식과 적극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반응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김일성 주석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전에 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한 제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통령급 이하의 관료들의 개입없이 이같은 정상회담이 즉각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카터 前 美대통령을 통해 전달하였음.
- 북한은 이제까지 핵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미국과의 直接對話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이 먼저 개최요구를 한 바 있는 특사교환 협상조차도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금번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는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態度變化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7월 8일로 예정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임.

Ⅲ.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背景 및 意圖

1. 背景

- 북한은 이제까지 그들의 核施設에 대하여 완전한 核透明性 제공과는 거리가 먼 制限的인 査察만을 허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경제·군사상의 이득을 미국으로부터 유도해내고자 노력해왔음.
- 이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은 NPT 탈퇴선언(1993.3.12), 핵연료봉 교체 強行 및 IAEA 脫退宣言(6.13)과 같은 極端外交(brinkmanship diplomacy)를 구사함으로써 여러차례의 국제적 制裁威脅에 직면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 강행과 관련하여 IAEA의 對北制裁 決議案이 채택(6.10)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태에까지 봉착하게 되었음.
- 북한의 이러한 極端外交는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더욱 자극함으로써 북한 스스로를 심각한 고립상태에 빠뜨린 결과를 가져왔음.
 - 특히 유엔의 對北制裁 결의시 러시아의 동참, 중국의 기권 예

상 등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한층 심화될 수 있는 처지에 직면하게 됨.

-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自國의 經濟難을 더욱 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可能性을 憂慮함.
 - 북한경제는 1990년 -3.7%의 負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1년 -5.2%, 1992년 -7.6%로 3년 연속 경제후퇴를 나타냈으며 1993년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趨勢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의 食糧難은 1991년 이후 계속 악화되어 社會問題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임.
 - 1994년을 기준으로 식량수급 현황을 보면, 총수요는 670만톤인데 반해, 1993년 생산량은 390만톤(자급도 58%)에 불과해 부족량이 280만톤에 달함. 1993년 식량 도입량은 71만톤, 도입 후 부족량은 208만톤(충족량 69%)임.
 - 食糧難으로 인한 배급지연으로 缺食者가 발생(일부지역 15~30일)하고 있는가 하면 식량절도 및 약탈행위가 빈발해지고 있으며,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뇌물, 절도 등 社會逸脫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음.
- 이러한 對內外的인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은 유엔 安保理의 결의에 의해 최소한 경제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들의 취약한

경제에 미치게 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對北制裁局面을 對話局面으로 反轉시킬 필요가 있었음.

2. 意圖

가. 肯定的 意圖

- 肯定的 意圖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 및 남한에 의한 吸收統一 可能性을 事前에 抑制하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對內外的인 構造的 問題의 解決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政策轉換을 意味하는 것임.

1) 南北韓 關係改善과 外交的 孤立 脫皮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것은 그들의 핵문제를 평화적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사반영임과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 완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문제로 인한 國際的 孤立狀態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중국조차도 북한이 核協商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성을 보임과 동시에 남한을 협상에서 철저히 소외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남북한의 平和的 協商을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상회담을 통한 南北對話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安保理의 對北制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지만 IAEA 이사회의 對北援助 중단 결의 표결(1994.6.10)에서 거부권 행사가 아닌 기권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들출 행동 가능성에 대한 事前 警告意思를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임.

- 러시아는 北核問題를 정치·외교적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최선책으로 판단하고 최악의 경우 제재라는 強硬手段에의 의존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북한측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강행을 초래하게 될 강경대처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한반도의 緊張局面이 첨예화되는 것 또한 원치 않고 있음.
-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미·북한간의 核協商을 평화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한반도 緊張緩和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임.
- 미국 역시 對北協商을 통해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관계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대화의 肯定的 發展을 중요시하고 있음.

2) 外部援助 및 經濟協力の 誘引 및 擴大를 통한 經濟沈滯 脫皮

- 북한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한 결과 對外依存度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對中國 및 舊蘇聯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음.
- 1989년 이후 東歐 및 舊蘇聯에서의 공산정권 몰락과 사회주의체제 포기 및 중국의 개혁·개방 등은 북한의 對外貿易과 經濟協力 基盤을 붕괴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더욱 침체시켰음.
 - 특히 중국은 덩소평 집권 이후 현대화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對北韓 支援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실리위주의 정책 노선으로 인해 기존과 같은 혈맹관계하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그 결과 북한의 總交易 實績은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산업생산 및 투자부문에 있어서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여건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西方 諸國과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서 改革과 開放을 통해 국제협력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직면해있음.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일련의 외자유치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개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침체 극복노력을 제한해 온 것은 體制自體의 硬直性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미·일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 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援助 및 經協誘導를 어렵게 하였음.

- 따라서 북한이 부분적이거나 開放을 통한 經濟沈滯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核協商을 평화적으로 종결하고 남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의 긴장분위기를 해소함으로써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對西方으로부터의 援助 및 經協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나. 否定的 意圖

- 否定的 意圖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실질적인 남북대화 재개로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核武器 保有」와 「核카드 活用」의 二重目的을 견지하면서 核戰略의 일환이나 對南戰略的 차원의 미·북한 「平和體制」 구축 및 對內體制 鞏固化用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의미함.

1) 「核武器 保有」와 「核카드 活用」의 二重目的 達成을 위한 環境造成

- 김일성 주석은 지난 6월 15~18일에 있었던 카터 前 美대통령과의 회담에서 核凍結을 약속함으로써 미국과의 제3단계 고위급회담을 유도하였으며, 북한은 同 회담을 통하여 미국과의 一括妥結 방식의 政治協商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제의한 核凍結이란 그간의 핵개발 過去史는 不問에 부치고 향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임.
 - 북한의 향후 핵개발 억제를 위한 조건은 ① 既 인출한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 금지, ② 5MW 원자로 새연료 장착 금지, ③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 등임.
 - 북한의 이러한 核凍結 제안은 既 개발된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단지 현재, 미래의 핵개발 추진유무를 새로운 핵카드로 활용함으로써 美·北韓關係 正常化 의제를 포함한 정치협상을 미국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구하려는 것임. 즉 이것은 북한의 「最小限의 核武裝 옵션 不拋棄」와 부분적 양보차원의 「核카드 活用」을 통한 이득 챙기기 등 二重目的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방안임.
- 이와 같이 북한의 核凍結 차원에서 남한의 安保와 직결될 수 있는 미·북한 정치협상이 시도될 경우 남한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북한은 향후 對美 核協商과 관련, 남한의 불만을 사전에 억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우리측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韓半島 非核化를 완벽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NPT에 완전히 복귀하고 IAEA의 通常 및 特別査察과 남한과의 相互査察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여야함.

2) 南韓 排除 次元의 美·北韓 「平和協定體制」 構築

- 북한이 미국과의 核協商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美·北韓 關係正常化의 실현과 함께 그들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美軍의 남한주둔 및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는 것임.
 - 북한은 이를 위하여 對美 核協商에서 「一括妥結」 方案¹⁾을 끊임 없이 주장해 왔으며, 그 내용 중에는 「休戰協定體制」를 美·北韓 「平和協定體制」로 전환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

1)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담화(1993.11.12)를 통해 미·북한 쌍방이 서로 실시할 조치를 정해놓고 동시에 움직이는 「一括妥結」 (a package deal) 방식을 제의한 바 있음. 북한이 일괄타결 방식을 견지하는 것은 미국이 제시한 바 있는 단계적 해결방식, 즉 「先 핵문제 해결, 後 관계개선을 포함한 정치적 타결 협의」를 수용할 경우 핵카드의 효용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협상은 美·北韓間 政治協商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

- 클린턴 美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7월 초 북한과 제네바에서 새로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면서 고위급회담에서 미·북한 양국은 “핵문제 외에 북한의 對國際社會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치 및 경제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과의 政治協商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핵문제 협상을 위한 미·북한 제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 관철을 포함한 정치협상의 事前 整地作業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즉 미·북한 「平和協定」 체결 관철을 위하여 미국 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에서, 북한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통하여 기존의 남한 孤立戰略에서 對話戰略으로의 전환자세를 과시함으로써 平和 및 和解霧圍氣를 창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3) 內部體制 鞏固化를 위한 金日成 威信誇示

○ 북한은 외국 국가수반을 포함한 중요인물에 대한 招請外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활성화를 통한 體制鞏固

化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북한에 있어서 舊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여파로 인한 심각한 체제위협의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작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최소한 대내적 차원에 있어서라도 남한정부 수뇌의 「拜謁」會談 형식을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敬畏心を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즉 남측에 「대한민국」의 호칭을 가진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국가수반이 아닌 단순한 그 단체의 장 또는 책임자를 초청·방문케하여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敬畏心を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거나,

- 김영삼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여 김주석을 「拜謁」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게 하여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차원에서의 김일성에 대한 '수령이미지'를 북한내에 창출하고자 기도할 가능성이 있음.

다. 綜合評價

○ 북한은 심각한 外交的 孤立과 經濟的 沈滯에서 기인한 社會的 不

安定 狀態의 탈피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하여 核透明性を 제공하여 國際制裁를 모면함과 동시에 對南關係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對西方關係를 개선시킬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 사실임.

- 김일성 주석의 금번 정상회담 제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對南關係를 개선시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를 근간으로 對西方 關係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肯定的 意圖의 一面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이제까지 IAEA와 미국측의 北核施設 사찰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核透明性を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美·日을 비롯한 對西方 및 對南 關係改善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경제협력 및 원조를 誘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核透明性 보장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과 제재위협을 감수해온 것은 그들의 核戰略과 관련하여 二重目的, 즉 「最小限의 核 옵션(과거 핵) 不拋棄」와 부분적 양보 차원(현재, 미래 핵개발 동결)의 「核카드 活用」으로 對美 關係개선 및 미·북한간 「平和協定」 체결을 포함한 政治協商을 성사시켜 나가기 위한 否定的 意圖에서 緣由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는 「最小限의 核 옵션」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肯定的인 방향으로 對內外的 政策轉換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과 같은 對南 有和的 姿勢를 취하게 된 것은 上記 二重目的을 가진 北核戰略 관철을 위한 분 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됨.
 -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유엔 安保理의 對北制裁, 북한의 강경대 응으로 사태가 급작스레 악화되던 최근까지의 北核狀況이 협 상분위기로 反轉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투명성 제공 차원에 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 그들의 核戰略과 관련, 上記 二重目 的 관철을 가능케 할 수도 있는 북한의 核凍結 제안이 미국에 의해 전향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임.
 - 미국은 핵사찰과 관련한 북한의 돌출행동에 대한 응징조치로서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를 모색해왔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 적인 태도로 인하여 制裁의 實現性조차 의심되는 상황에 봉착 하였음.
 - 결국 이러한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 해서는 段階的 協商을 모색하면서 현재 및 미래의 核凍結 약 속을 받아내는 식으로 制裁局面에서 協商局面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核凍結 약속 차원에서 의 對美 政治協商에 성공할 경우 핵문제로 인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탈피함과 동시에 美·日을 포함한 대서방 및 대남관계를 개 선할 수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

외적 경제원조 및 협력을 誘引하여 그들의 부분적 개방노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임.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추구하는 局面轉換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同 회담에서 북한이 對美 政治協商에 실패할 경우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압력이 지속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면전환의 의도가 실현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IV. 頂上會談 展望 및 우리의 考慮事項

1. 頂上會談 展望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는 美·北韓間 核協商의 진전에 따라 그 성사 여부와 실질적 성과가 결정될 것임.
 - 核凍結 조건 준수 여부는 향후 미·북한간 핵협상의 진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결국 북한은 核凍結을 조건으로 對美 관계개선을 비롯한 政治協商을 진행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核凍結 차원을 넘어서는 요구를 協商議題로 제기할 경우 미·북한 3단계고위급회담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미국이 북한핵의 현재, 미래의 핵투명성 보장요구 차원에서 아니라 영변의 두개 핵의혹 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을 포함한 북한핵의 「過去」 투명성 보장요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제3단계회담은 진통이 예상된다.
 - 김일성 주석은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타결을 보게될 정치적 의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政治的 決斷」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북한의 核凍結

약속, 美·北韓 관계개선 및 平和協定締結 등을 포함한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한에 있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이 그만큼 반감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한핵 관련 미국의 태도가 힘을 사용하는 強硬策 選好立場에서 協商을 통한 해결책에 비중을 둔 방향으로의 旋回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북한핵의 「과거」 핵투명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및 미래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 관계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는 政治協商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이의 並行的 차원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미·북한협상의 진전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양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도 예상할 수 있음.

2. 우리의 考慮事項

가. 南北頂上會談 開催 準備를 위한 安定的 霧圍氣 造成

- 남북한 당국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결과라든가 향후 「會談霧圍氣를 해치게」할 돌

출적인 변수가 나타나 정상회담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개최되더라도 정상들의 만남 그 자체가 갖는 象徴的 價値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크지 않는 결과만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우리측 정부는 국민들에게 南北頂上會談 성사에 대하여 지나친 환상을 억제하는 안정적 준비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對南戰略的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계기로 남한 당국의 政策的 混線을 불러 일으켜 남한사회의 불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나.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 議題 關聯 韓·美間의 事前 調律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측은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한 事前協議를 하고 이에 대한 美國과의 意見調律을 필요로 함.
 - 「核凍結」 차원의 핵협상과 관련, 북한의 「過去」核透明性 확보 문제 협의 및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의제 즉 미·북한 관계개선, 미·북한 「平和協定」 체결, 美軍撤收 문제, 北에 대한 경수로 교체 지원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異見을 최소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우리측이 이러한 정치·군사적 의제에 대하여 입장의 혼선을 노정시킬 경우 북한은 「회담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하거나 연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韓·美關係를 이간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다.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과 南北頂上會談과의 有機的 連結 圖謀

-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美·北韓 쌍방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약속 수준, 미·북한 관계개선 및 平和協定締結 등을 포함한 민감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거부 또는 수용과 같은 즉각적인 의사표명을 자제하고 原則的인 立場만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대신 우리측은 이것들을 남북정상회담에 再上程하여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한 兩 頂上間의 협상을 거치고 난 후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우리측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실천 요구
 - 북한의 현재, 미래의 핵무기 개발활동 억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핵물질 전용 여부에 관한 완전한 核透明性이 보장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對北韓 국제원
자력기구의 通常, 臨時 및 特別查察뿐만 아니라 南北相互查
察 실시 요구

- 남북한간 「平和協定體制」 구축

- 「休戰協定體制」의 「平和協定體制」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북
한은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한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
결을 제의하고 있어 當事者 문제에 있어서의 異見을 보이고
있음.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체결 당사자
가 분명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은 당연히 한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것임.

- 「先 北韓 핵문제 해결」, 「後 美·北韓 관계개선」

- 미·북한 관계개선 관련 협상은 가능한한 북한 핵문제 해결
과 並列的 步調를 취하면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

○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의제들 외에도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및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등과 같은 人道的 次元의 문제도 적극
거론되어야 할 것임.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의개방 現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統一情勢分析 94-1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7월 일

發行日 1994년 7월 일
